



Web Contents



2024년 04월 18일 02시 48분

선구작가들의 열과 혼을 담다

목포문학관



우리나라 연극에 근대
극을 최초로 도입한
극작가 김우진



우리나라 여성 소설가
로 최초로 장편소설을
집필한
소설가 박화성



우리나라 사실주의 연
극을 완성한
극작가 차범석



우리나라 평론 문학의
독보적 존재
문학평론가 김현

서해안시대의 개막으로 해양문화의 선두에 서 있는 목포시!

목포시에서는 목포 문학인들이 지금까지 이룬 문학적 성과를 이어받아 목포 문학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**목포 문학의 미래**를 펼쳐나가 고자 한다.

1920년대 목포는 김우진과 친교를 맺고 지내던 문화, 예술인들의 발길이 찾아지면서 예향으로서의 기초가 다져졌다. 1930년대 박화성, 1950-60년대에 들어서 이동주, 조희관, 최일수, 차범석, 권일승, 최하림, 김 현 등의 등단으로 목포 문학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. 목포시에서는 목포문학인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문학적 성과를 이어받아 목포문학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목포문학의 미래를 펼쳐나가 고자 한다.

목포문학관은 시원한 푸른 바다가 한 눈에 내다보이는 목포 갯바위 문화타운에 대지 2.825.94㎡, 지상 2층 건물로 1층 박화성관과 차범석관, 2층 김우진관, 김현 관으로 꾸며진 국내 최초 4인 복합 문학관이다. 유난히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 우리 한국 문학사에 빼놓을 수 없는 거봉인 김우진, 박화성, 차범석, 김현 선생님의 삶과 문학세계를 손 때 묻은 유품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.

이제, 목포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꼭 한번쯤 가보고 싶은 곳, 목포문학관을 통해 목포를 넘어 전국으로 퍼지는 문학의 향, 목포의 향을 만나보자.

MokPo - Si
Web Contents

